메리츠 금융 Daily

은행/지주 Analyst 은경완
02. 6454-4870
kw.eun@meritz.co.kr

meritz 메리츠증권

2022년 6월 3일 (금)

News

5대 은행 가계대출 1조3302억 감소…수신은 증가
뉴시스

국내 주요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1조 615억원으로 전월비 1조 3,302억원 감소… 올해 1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
주담대는 두 달 만에 감소세로 전월 주담대 잔액은 506조 6,723억원…신용대출은 6개월 연속 감소하며 전월 잔액 131조 7,993억원

코로나 대출, 착시 언제까지 은행 부실채권비율 7분기 연속 역대 최저
머니S

지난 3월말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비율 0.45%로 전분기말대비 0.05%p 하락하며 최저치… 총여신은 2,414조 2,000억원 집계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 0.62%,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 0.17%... 1분기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1조 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000억원 감소

공모주 한풀 꺾였는데 괜찮나…'인터넷은행 1호' 케이뱅크, 연내 코스피 상장
매일경제

케이뱅크, 이달 중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 중… 이변 없다면 8월 말경에는 공모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실적이 크게 개선돼 기업가치 책정에 유리한 시점이기 때문…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 씨티그룹글로버마켓증권, JP모건

토뱅, 국내은행 최초 지불카드 보안표준 레벨1 획득
파이낸셜뉴스

토스뱅크, 국내 은행권 최초로 글로벌 신용카드 데이터 보안인증인 '지불카드업계 정보보안표준' 인증 획득
최상위 등급인 레벨 1을 받아… 고객의 카드 정보가 강도 높은 보안 정책에 따라 보호되고 모든 처리 영역에서 암호화되어 중도 노출 위험 없다는 점 인정받은 셈

은행에 뺏기지 않는다…보험사 3%대 저축성 보험 출시
e대한경제

한화생명, 2일부터 5년간 3% 금리 보장해주는 저축성보험 상품 출시… 은행을 통해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전용 상품
시중금리 상승으로 3% 보장하더라도 4~5% 수익 낼 수 있는 투자처가 늘고 있는 상황…. 보험사는 아무 제약 없도 상황에 따라 상품이 가지는 장점도 있다는 설명

흥국화재 채권 수요 예측 미달...보험사들 자본확충 '비상'
뉴스핌

흥국화재, 지난 31일 신종자본증권 발행해 300억원의 자금 조달… 메리츠증권 260억원, 기관투자자들 40억원 규모 배정… 충분한 투자 수요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
코리안리도 지난 30일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섰으나 수요 미달…. 자본성증권 발행량이 급증했기 때문… RBC비율 하락으로 빚을 내 자본 쌓는 수요 급증

케이프·DS투자증권 등 7곳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
이데일리

금융위원회, 7개 증권사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 지정 기간은 2년으로 오는 2024년 5월까지
케이프투자증권과 DS투자증권은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회사…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활성화되도록 제도 개선 추진할 방침

"솟아날 구멍을 찾아라"…증권사, 펀드 판매 수익 호조
아시아투데이

올 1분기 말 국내 36개 증권사의 펀드 취급수수료는 1,710억 2,577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 증가… 코스피시장 수탁수수료 수익 45.9% 급감한 것과는 대조적
증권사별로는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가장 큰 폭의 성장세…. 리딩투자증권도 펀드판매고의 수혜로 전년동기대비 144.1% 증가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